

‘김새론들’ 숨지게 한 숨어있는 빅브러더

광화문·부

어수웅

여론독자부장



늘 그렇듯 다시 조용해졌다. 배우 김새론이 스물다섯 나이로 세상을 떠난지 벌써 보름. 며칠 동안은 우리가 너무했다. 악플이 범인이다, 악성 유튜브와 황색 언론 책임이다 등등 질타가 이어지더니 다시 잠잠하다. 늘 그런 식이다. ‘죽어야 멈추는 손’이라며 악플에 대한 비난이 거셌다. 그리고 대응책으로 법적 처벌과 소위 ‘금융 치료’를 거론한다. 옳은 말이다. 당연히 처벌도 강화해야 하고 배상금도 물려야 한다. 하지만 이 ‘못된 손’의 장막 뒤에는 숨은 빅브러더가 있다고 생각한다. 빅테크의 알고리즘. 분노와 혐오 비즈니스로 유튜브와 연에 매체를 자발적 불나방으로 변신시키는 진짜 범인 말이다. 현대 동남아 사회에서 최대 2만5000명이 살해당하고 6만명이 강간당했으며, 73만명이 추방당한 민족 청소 사건이 있었다. 불교 나라 미얀마의 이슬람 소수민족인 로힝야족 이야기다. 2018년 당시 페이스북의 자커버그가 미 상원 청문회에 참석해 책임을 인정했다는 사실은 꽤 알려져 있지만, 구체적으로 어떤 알고리즘이 이 비극을 낳았는지 기억하는 사람은 많지 않을 것이다. 플랫폼을 보유한 빅테크 알고리즘의 제1 원칙은 ‘사용자 참여의 극대화’다.

단순히 많은 시간뿐만이 아니다. ‘좋아요’ 누른 횟수, 게시물의 공유 행위까지도 포함한다. 이유는 명백하다. 점유율 확대와 그 결과인 광고 수익의 극대화. 인터넷 사용을 위한 심카드 가격이 2달러 수준으로 내려며 인구 5000만명의 미얀마에서 페이스북 사용자는 1800만으로 폭증했다. 당시 이 나라에선 페이스북이 곧 언론. 페이스북은 2016년 ‘인스턴트 아티클’ 제도를 도입했다. 한마디로 조회 수와 클릭 수 비례로 제작자를 보상하는 시스템이다. 결과는? 직전까지 미얀마 온라인 뉴스 사이트 상위 10곳 중 6개가 합법적 정론지였던

분노와 혐오 비즈니스로 유튜브·연에 매체 불나방 만드는 장막 뒤 진짜 범인은 빅테크 ‘악마의 알고리즘’을 바꿔야 한다

데 반해, 2년 뒤엔 토텐 모두 가짜 뉴스 범벅의 낚시성 매체로 도배됐다. 유감이지만 우리는 두 얼굴을 가진 존재. 악역에 숨을 수 있다면 이성을 관장하는 전두엽보다 충동과 감성을 우선하는 변연계의 노예가 된다. 군부 독재가 끝나고 민주화 바람이 분 미얀마에서 정파와 종교마다 작은 충돌이 시작됐을 때, 페이스북은 미얀마 국민들의 전두엽보다 변연계를 연결했다. 이슬람 교도를 폭어준 착한 스님의 미담은 뉴스피드에서 안 보이는 곳으로 밀렸고, 폭력·살인·민족 청소를 부르짖는 과격파의 동영상만 무한 공유됐다. 그 결과가 앞에

서 언급한 끔찍한 숫자들이다. 메타의 자커버그나 네이버의 이해진은 억울할지 모르겠다. 로힝야족의 존재 자체도 몰랐을 수 있고, 영화 ‘아저씨’의 꼬마가 성인이 됐지도 몰랐을 수 있으니까. 하지만 ‘사용자 참여의 극대화’는 그때나 지금이나 빅테크 알고리즘의 제1 원칙. 종이 신문 등 소위 레거시 미디어가 이 배우의 사생활을 아예 다루지 않거나 품위를 포기하지 않을 때, 수익 창출을 꿈꾸는 유튜브와 인터넷 매체는 ‘음주 운전 지속 중 술과 파티’ ‘셀프 연애론 소름 돋는 행태’ 등의 혐오 콘텐츠를 양산해냈다. 소셜미디어와 빅테크 플랫폼의 필요성을 부정하는 게 아니다. 더 적극적인 자정 장치와 수정된 알고리즘이 필요하다는 얘기다. 수많은 장점에도 불구하고 지금 유튜브와 X와 페이스북과 틱톡은 “진실을 장려하기보다는 거짓과 허구에 보상해주는 오류 증폭 장치”(유발 하라리의 ‘헷사스’)에 가깝다. 좋아하는 일화로 다섯 살 소년과 아빠의 게임 에피소드가 있다. 게임에서 진 아이의 컴퓨터 화면에 ‘fail’이라는 창이 떴다. 과연 영어를 알아 싫어 궁금해진 아빠가 묻는다. “너, fail이 무슨 뜻인지 알아?” 해맑게 웃는 소년의 대답. “응 아빠, 다시 하라는 뜻이야.” 실패가 아니라 다시 하라. 한 번 넘어졌더라도 다시 일어설 수 있는 사회, 재기(再起)가 가능하도록 ‘악마의 알고리즘’을 바꿔야 한다. 공룡이 자기 목에 방울을 달 수는 없는 법. 법과 정치가 계속 압박해야 한다.

우정아의 아트 스토리 [571]

멕시코의 꽃장수 소녀

‘칼라틸리’의 ‘칼라’는 아름다움을 뜻하는 그리스어다. 줄기로부터 힘차게 뻗어 올라 우아한 곡선을 이루며 펼쳐지다 날카롭게 끝을 맺는 순백의 꽃잎은 과연 그 이름이 부끄럽지 않을 만큼 아름답다. 하지만 아무리 만인의 눈을 매혹하는 꽃이라도 그것이 고된 생계의 수단인 이에게는 귀중하지만 버거운 짐이다. 멕시코의 국민 화가 디에고 리베라(Diego Rivera·1886~1957)는 화려하게 만개한 칼라틸리 꽃 더미 아래 파문하듯 무릎을 꿇고 앉은 원주민 소녀를 그렸다. 얼굴을 알 수 없는 소녀의 몸집이 꽃에 비해 너무 작다. 리베라에게 칼라틸리는 멕시코의 고통과 동시에 희망의 상징이었다. 어릴 때부터 그림에 천부적인 재능을 보였던 리베라는 1909년부터 10년 동안 유럽에서 수학하면서 피카소와 뒤샹 등 혁신적인 미술가들과 가깝게 지내며 다양한 회화의 양식을 익혔다. 사실주의, 표현주의, 입체주의 등을 자유자재로 구사하게 된 리베라는 고국으로 돌아와 라틴아메리카의 전

통적인 미감을 결합해 독자적인 스타일을 이룩했다.

그의 색채에서는 투박하지만 강인한 땅의 기운이 느껴지고, 단순하고 명료한 형태로 그려낸 멕시코인들은 순수하면서도 고귀했다. 부활의 상징으로 특히 장례식에 많이 쓰이는 칼라틸리는 유럽의 무자비한 수탈로 시작된 멕시코의 고난의 역사와 그림에도 굳건하게 삶을 일구는 평범한 이들에게 리베라가 바치는 꽃이다.

이 그림은 1941년 여름, 멕시코시티를 방문했던 미국 영화 배우 캐리 그랜트가 리베라를 만난 뒤 구입해 수십 년간 보유하다 미술관에 기증했다. 사회 밑바닥에서 시작해 스스로 최고의 지위에 오른 그랜트에게도 한 마음이 넘치도록 칼라틸리를 끌어안은 작은 소녀가 남다른 의미였을 것이다.



디에고 리베라, 꽃장수, 1941년, 메조 나이트에 유채, 121.9×121.9cm, 패서디나 노튼사이먼 미술관 소장.

포스텍 교수·서양미술사

社 説

트럼프 對韓 메시지 나쁘지 않으나 최악에 대비를

영국·프랑스·독일 등 나토 동맹국 정상 10여 명이 2일(현지 시각) 런던에서 만나 우크라이나 군사 지원과 러시아 제재 지속, 우크라이나를 뺀 평화 협상 반대 등에 뜻을 모았다. 핵보유국인 영국·프랑스가 주도하는 새로운 우크라이나 안전 보장 계획도 추진하기로 했다. 프랑스 대통령은 “유럽의 핵 억제력 논의를 시작할 준비가 돼 있다”고 했다. 독일 차기 총리가 제안한 ‘유럽 핵 공유’에 공감한 것이다. 독일은 미국과 ‘핵 공유 협정’을 맺고 있다. 미국의 핵 사용 결정 과정에 의견을 반영하고 핵 투하도 자국 전투기로 한다. 그러나 트럼프 등장으로 미국의 ‘핵우산’ 약속을 믿기 어려워진 만큼 유럽끼리 무장 푸틴의 핵 위협에 대응하려고 한다. 소련 붕괴 후 우크라이나는 핵탄두 1600여 기를 보유하고 있었지만 1994년 미국·영국·러시아의 영토 보장 약속을 믿고 핵을 폐기했다. 지금 러시아는 물론 미국도 우크라이나를 함부로 대하고 있다. 우크라이나와 한국을 같은 선상에서 비교할 수는 없다. 러비공 같은 트럼프지만 중국 견제는 변함없는 핵심 전략 목표이고, 한국은 중국을 상대하는 데 중요한 동맹국이다. 트럼프가 취임 직후 ‘한미 조선 협력’을 제기한 것은 중국군에 뒤지는 미 군함을

을 만들어달라는 것이다. 최근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이 방미해 군함·탱크(LNG 운반)·쇄빙선 등의 대미 공급 방안을 제시하자 ‘생큐’라는 반응을 보였다고 한다. 중국을 배제한 글로벌 공급망 재편 과정에서도 미국은 한국의 제조업 역량이 꼭 필요하다. 그동안 트럼프가 한국에 보낸 메시지는 나쁘지 않다. 그렇지만 트럼프의 미국은 우리가 알던 미국이 아니다. 미 국무 장관은 “세계에 일국 세력만 있는 것은 정상이 아니다”라며 “다극화 세계로, 여러 열강이 있는 지점으로 돌아가고 있다”고 했다. 일극 체제를 스스로 거부하고 있다. 자유민주주의와 자유무역을 내걸고 미국이 세계 경찰 역할을 하던 시대는 끝나는 분위기다. 트럼프는 젤렌스키에게 “우리(미국) 무기가 없었으면 전쟁은 2주일 만에 끝났을 것”이라며 종전을 압박했다. 안보를 외국에 일반적으로 의존한 나라가 겪는 운명이다. 트럼프는 중국의 대만 침공에 관한 질문에도 “절대 언급하지 않겠다”고 했다. 우크라이나·대만과 달리 한국은 미국의 동맹국이다. 트럼프에게 한국의 안보·경제 역량이 필요한 만큼 한미 동맹을 강화할 기회는 있다. 그러나 최악의 상황에도 대비해야 한다. 스스로를 지키는 데 필요하다면 어떤 수단도 금기시해선 안 된다.

“AI로 병력 대체”, 이번엔 男心 겨냥 포퓰리즘인가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2일 공개된 유튜브에서 인공지능(AI)과 국방을 언급하면서 “수십만 젊은 청년이 왜 군대 막사에 앉아 세월을 보내나. 그제 과연 진정한 국방력, 전투력일까”라고 말했다. 이 대표는 “우크라이나 전쟁을 보면 거의 드론 전쟁”이라며 “결국 다 드론, 로봇, 무인으로 갈 텐데 국방을 AI화해야 한다”고 말했다. AI와 드론이 현대전 양상을 바꾸고 있는 것은 사실이다. 우크라이나 전쟁에선 AI 기반 드론이 전선에서 수백 킬로 떨어진 곳의 목표물을 정확히 타격하고, 이스라엘의 AI 기반 표적 분석 시스템은 하마스 핵심 요원과 시설을 공격하고 있다. 그러나 드론과 AI, 첨단 과학기술이 부족한 병력을 어느 정도 보완할 수 있지만, 전쟁의 승패를 좌우하는 핵심 요인은 인간 병력이다. 세계 최고의 첨단 무기와 기술을 보유한 미군이 130만명이 넘는 병력을 유지하는 것도 국방은 컴퓨터 게임이 아니기 때문이다. 우리는 저출산으로 병력 자원의 급속한 감소를 겪고 있다. 현재 육군은 36만명 수준이고 북한은 110만명이다. 10년 뒤 육군은 29

만명, 20년 뒤에는 20만명 이하로 떨어진다는 전망이 나오고 있다. 그때에는 최대 5배 많은 북한의 적과 상대해야 한다. 우리 국방은 저출산 외에도 선거 때마다 사병의 복무 기간을 줄이고 월급을 인상하겠다는 여야의 ‘국방 포퓰리즘’에 시달리고 있다. 정치권의 복무 기간 단축 경쟁 때문에 현재 병사들의 복무 기간은 18개월까지 축소됐다. 기초 전술을 익히기도 전에 전역하게 되는 수준이다. 반면 군의 실질적 기동인 초급 간부들은 표가 안 된다는 이유로 병사들에 비해 처우 개선이 늦어지면서 지원 인력이 매년 격감하고 있다. 북한과 대치하는 국가에서 선거 때마다 반복되는 국방 포퓰리즘은 드론과 AI 같은 첨단 전력을 무용지물로 만들 수 있다. 조기 대선이 치러질 경우 이번에도 군 복무 기간 단축이나 병사 월급 인상 같은 포퓰리즘 공약이 등장할 우려가 커지고 있다. 이 대표의 발언은 자신과 민주당에 비판적인 20대 남성들의 표를 겨냥한 것으로, 다른 후보들의 국방 포퓰리즘 경쟁을 촉발시킬 수 있다. 군 복무와 관련한 자체적인 공약이 쏟아질까 걱정스럽다.

선관위 간부가 정치권 소통용 ‘세컨드폰’, 공정성 어떻게 민겠나

중앙선관위 김세환 전 사무총장이 재임 시절 선관위 명의의 ‘세컨드폰’을 만들어 정치인들과 연락한 사실이 감사원 감사로 드러났다. 2022년 대선과 지방선거를 앞둔 시절이었다. 김 사무총장은 퇴임 후에도 1년8개월 더 이 폰을 사용했다. 감사원이 이 폰을 확보했을 때는 ‘공장 초기화’ 등을 통해 데이터를 삭제해 포렌식을 통해서도 데이터 복구가 불가능한 상태였다. 이 폰으로 언제 누구와 통화했는지 확인하기는 어려운 상태였다는 것이다. 선관위의 생명은 정치적 중립과 독립성을 지키는 것이다. 그런 선관위 고위 간부가 정치인 연락용으로 별도의 폰을 사용했다는 것 자체가 의혹을 불러일으킨다. 더구나 이 폰을 포렌식으로 도 데이터를 복구하기 어렵게 만들었다면 더더욱 뗏뗏하지 못한 일들이 벌어졌을 가능성이 높다고 할 수 있다. 사무총장이 특정 정치인과 몰래 소통하며 불공정하게 업무를 처리하지 않았다고 어떻게 담담할 수 있겠나. 그렇지 않아도 선관위는 놀라운 채용 비리, 취약한 보안, 부실

한 선거 관리 등으로 거센 비판을 받고 있다. 감사원이 공개한 선관위의 채용 비리 실태를 보면, 10년간 진행한 경력직 채용 규정 위반이 878건이나 있었다. 위반을 하지 않은 채용은 단 한 차례도 없었다. 채용 비리 제보가 들어오면 “우리는 가족 회사” “친인척 채용 전통이 있다”는 이유로 묵살했다고 하니 말문이 막힐 정도다. 세금으로 운영하는 조직 중 이런 조직은 없었을 것이다. 북한 해킹 공격을 받아도 알아차리지 못했고, 대선 때 투표용지를 소쿠리에 담아 옮기는 등 부실하게 관리하기도 했다. 이제 감시 사각지대에서 정치적 중립마저 의심받는 선관위를 이대로 둘 수는 없는 일이다. 대대적인 선관위 개혁이 필요하고 선관위를 국민 감시의 영역에 놓아야 한다는 데 동의하지 않을 국민은 없을 것이다. 우선은 선관위 특별감사관 도입이나 국정조사를 통해서라도 선관위 부패 실태를 명확히 드러내고 추가 논의를 통해 선관위를 국민이 제대로 감시하고 견제할 수 있는 제도를 반드시 마련해야 할 것이다.

《탄핵 정파-언론-대통령병 환자들》에게 경고한다 ⚠

- 4가지 과제 ①《탄핵 연합세력 척결》투쟁 ②《자유-우파 정통성 확립》투쟁 ③《공권력 장악 좌익 이권 카르텔 소탕》투쟁 ④《뉴 자유-보수-우파 주류세력 형성》투쟁



▲ 광화문에서부터 남대문을 거쳐 서울역까지, 여의도 국회와 대학로가 태극기로 뒤덮였다. © 정성운 기자

자유-공화 시민 총결기

2025년 3.1절 제106주년. 광화문-여의도-대학로 마로 나에 공원이 터져나갔다. 호국 세대-산업화 세대-자유민주 세대-2030 세대-대학인들이 쓰나미처럼 파도쳤다. 그리고 외쳤다.

《3.1 자유국민저항운동》은 선언한다 ... 선(先) 윤 대통령 복귀, 후(後) 개헌 논의

자유-공화-시민은 일어나 쟁취하자! 윤석열 대통령 구속 취소! 사기 탄핵 반대! 대한민국 수호! 자유민주주의 수호! 반(反)국가세력 척결! 북-중-러 전제주의 반대! 한-미동맹! 한-미-일 협력! 자유 통일!

대한민국은 망국 5분 전

그렇다. 대한민국은 망국 5분 전까지 갔다. 《국과 전제주의 일당 독재 + 기회주의 중간파》의 《내란》으로.

윤석열 대통령의 12.3 계엄이 그 점을 일깨웠다. 부활이었다. 여명(黎明)이었다. 《한반도 구체제》종말의 시작이었다.

구체제는 무엇인가? 그들은 누구인가? 우리는 무엇을 위해 싸워야 하는가?

①《탄핵 연합세력》에 대한 투쟁 : 오늘의 글로벌 투쟁은 《한-미-일-인도-태평양 자유세계》나, 《북-중-러 전제주의》나의 대결이다. 이 싸움은 한국에선 《탄핵》이나, 《탄핵 반대》나의 충돌로 전개된다. 자유인들은 《탄핵 반대》의 선두에, 《국과 + 기회주의 정파-언론》

은 《탄핵》의 선두에 섰다.

②《자유-우파의 정통성》확립을 위한 투쟁 : 국자는 어차피 주적(主敵)이다. 문제는 아들과 결탁한 부역자들, 사이비 보수다. 이들은 박근혜-윤석열 대통령 탄핵에 앞장섰다. 이들은 그 《원죄》를 자정하지 않는다. 오히려 정통 자유 노선을 《구우》라 몰아친다. 아들을 단호히 잘라 버려야 한다.

③ 입법부-사법부-공수처-경찰을 장악한 《좌익 이권 카르텔》에 대한 투쟁 : 이번 《탄핵-반(反)탄핵》싸움에서 분명하게 확인된 바가 하나 있다. 국회-사법부-공수처-경찰-여-아를 관통하는 《기득권 카르텔 네트워크》가 그것이다. ★윤석열 대통령 체포명장 소탕 ★한남동 판저 습격 사건 ★《내란 프레임 씌우기》에서 그 내막이 적나라하게 노출되었다. 아들이야말로 오늘의 구체제, 《진짜 수구 반동 집단》이다.

④《새로운 자유-보수-우파 주류세력 형성》과제 : 윤석열 대통령은 즉각 《돌아와야》한다. 그러나 거기서 멈출 일이 아니다. 오늘의 퇴락한 국민의힘을 넘어, 21세

기 한국을 주도할 새 《자유-보수-우파 주류 정치세력》을 구축해야 한다.

⑤ 이제 무엇을 할 것인가? : 새 자유-우파 주류세력은 1987년 체제를 경신할 새로운 국가의 틀을 짜야 한다. 그러나 이는 급하게 서두를 문제가 아니다.

《탄핵 정파-언론-대통령병 환자들》은 “올다구나”하고 《개헌 논의》를 써먹으려 한다. 노(no)! 《개헌》이 그들의 사냥터인가? 지금은 모든 논의를 《윤 대통령 복귀》로 집중할 때다.

《3.1절 총결기》의 주역 대한민국 자유인들, 결단하자! 오늘의 대투쟁 역량으로 21세기 한국을 선취(先取)하자! 자유대한민국 만세!

류근 일 뉴데일리 논설교련 / 전 조선일보 주필



이 기사는 인터넷신문 뉴데일리(www.newdaily.co.kr) 집필으로 2025년 3월 2일 게재 되었습니다.

